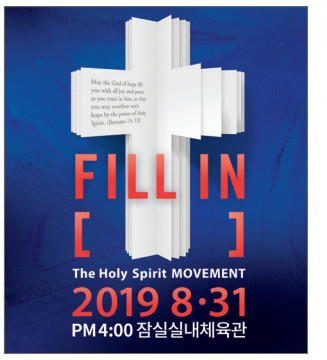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net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풍성한 기도응답 결실 맺은 〈호렙산 기도회〉 성찬식으로 성료

40일간 나라와 교회, 개인과 가정의 '회복' 위해 뜨겁게 부르짖고 은혜받은 시간

"광림의 성도들은 호렙산 기도회 마지막 날, 거룩한 성찬식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재림을 마음속에 새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확인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한 응답의 열매 맺어

40일 새벽을 깨우며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충만했던 〈제31회 호렙산 기도회〉가 7월 12일(금) 성찬식을 끝으로 은혜롭게 막을 내렸다. 호렙의 여정에 동참해 부르짖어 기도한 광림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 수많은 기도 응답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막혔던 사업 문이 열리고 암 세포가 깨끗이 사라져 완치 판정을 받았으며, 기도했던 장막의 문제와 아들의 취업 문제도 해결되는 간증이 쏟아졌다.

한효진 성도(8교구)는 "사업을 이끌어 가는 도중 믿고 의지하며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제 곁을 떠나고 있을 때, 억울하고 속상해 할까봐 미리 예비해주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호렙산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앞으로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라고 간증했다.

광림의 성도들은 호렙산 기도회 마지막 날, 거룩한 성찬식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재림을 마음속에 새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확인했다. 40일간 기도의 대장정을 마치면서 서로를 격려해주었고 세상에 나가서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나라와 교회의 회복'을 강조한 호렙산 기도회

김정석 담임목사는 호렙산 기도회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매 순간 전해야 합니다. 광야 같은 거친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 분의 손에 이끌려 살 때 우리는 회복과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40일간 기도의 회복, 나라와 교회의 회복, 개인과 가정의 회복을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전할 때 갈급한 심령과 상처 입은 자들의 마음속엔 소망과 은혜가 넘쳤다. 새벽마다 누구보다 일찍 나와 하나님 전을 지킨 수고의 손길이 있었기에 성도들은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차량봉사와 성도들의 안전을 책임진 기드온 위원들의 헌신, 찬양 인도와 반주, 방송과 영상 중계 등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린 성도들의 노고를 빼놓을 수 없다.

국경 넘어 가족과 함께한 기쁨과 소망의 잔치

광림교회 대예배실, 광림남교회, 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에서 '회복'을 주제로 진행된 호렙산 기도회는 가족과 함께한 기쁨과 소망의 천국잔치였다. 호렙산 기도회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성도들과 인터넷을 통해 호흡을 같이했다. 41개국(미국, 일본, 모로코, 베트남 등) 2만 3000여 성도들이 유스트림 인터넷 라이브방송을 시청했고, 3만여 성도들이 유튜브 VOD를 보면서 뜨거운 기도의 현장에 동참했다.

장로회, 담임목사에게 감사의 마음 전해

광림교회 장로회(회장 : 장세근 장로)에서는 7월 12일(금) 40일간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며 수고한 김정석 담임목사에게 성도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로 꽃다발을 전달했다.



소현수 기자 camancow@naver.com

2 광림의 강단 부끄러운 결심의 자화상
3 광림 스토리 2019 성령한국 청년대회
4 하나님을 만나다 성경 일독, 하나님의 뜻
6 믿음의 현장 예배자 2000명 회복을 위한 산 기도
7 특집 호렙산 기도회 간증
8 복음, 문화와 만나다 유물과 함께하는 성경과 역사

부끄러운 결심의 자화상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27~31)



마가복음 14:27~31
27.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28.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9.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30.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31.베드로가 힘 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27절)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28절)라고 고백합니다. 이때만 해도 베드로의 말은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잡히신 후 가야바

> 예수께서 이르시되
> 내가 진실로
> 네게 이르노니
> 오늘 이 밤
>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 네가 세 번
> 나를 부인하리라

뜰에서 종교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예수님의 재판을 바라봅니다. 그 자리에서 그의 마음은 가야바 뜰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과 뜰 밖에 있는 자신의 거리만큼 멀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곳의 여종이 "너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마 26:69)라고 말할 때 이를 부인한 것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그의 마음을 참혹하게 한 것은 예수님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웁니다. 모두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었을 때 그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실행이 없는 비전은 꿈에 불과하며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결단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단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속 부끄러운 결단을 한 베드로를 통해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첫째, 무지에서 오는 결단입니다.

베드로가 부끄러운 결단을 하게 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모두 다 나를 떠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맹세코 자신은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호언장담 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맹세일 것입니다. 아니면 지난 3년과 함께했던 스승에 대한 예의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자신이 누구이고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한 자인지 모르는 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경쟁관계에 있던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보다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실제를 보지 못하고 허상을 따라갔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 동거동락 했지만, 왜 제자로 삼으셨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하는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시길 기도드립니다.

둘째, 기도 없는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예수님 앞에 그 엄청난 고백을 한 베드로도 잠이 들고 말지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한시라도 너는 나와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우리 광림교회에서도 설교한 적이 있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 앨리스터 맥그래스는 22살에 옥스퍼드에서 분자생물학을 공부하고 Ph.D를 받은 유능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심하여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자연신학을 통하여 기독교 변증신학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예전에는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 뜨거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 20년이 걸렸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가슴의 뜨거움만 가지고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는 무지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기도 없는 삶은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헌신이 없는 결단입니다.

베드로는 헌신 없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욕과 욕심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하며 대가를 치르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헌신과 결단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다키스트 아워 Darkest Hour, 2017>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처칠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영화화 한 것입니다. 1946년 6월, 프랑스 북부 해안에 영국 군인과 프랑스 군인, 벨기에 연합군이 독일군에 포위되었습니다. 독일은 항복하라고 위협했지만 처칠은 독일군에 포위된 연합군을 하나도 다치지 않고 구출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지만, 처질은 영국 의회에서 "우리가 바쳐야할 것은 땀과 눈물과 피입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절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칠은 '덩케르크 작전'을 펼치고 약 40만 명의 연합군을 구출해냅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이 그 많은 군인들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빈 수레와 같은 말보다 헌신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얻고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목회연구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30

청년아, 하나님으로 채우고 세상으로 나가라

〈2019 성령한국 청년대회 〉 8월 31일(토) 오후 4시 잠실실내체육관 개최



세상을 향해 묻는 청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목적이자 해답

〈2019 성령한국 청년대회〉(이하 성령한국)가 오는 8월 31일(토)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만남, 비움&채움, 보내심'을 테마로 오후 4시~8시까지 4시간 동안 오직 찬양과 말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다. 주제는 'FILL IN [ ]'이다. 절망과 좌절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공허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 소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2019 성령한국 청년대회〉는 지난 2013년 '하디 1903 성령한국 기도성회'로 출발, 2015년부터 격년으로 대회를 열었다. 2013년 'Focus On' 2014년 'The Cross' 2015년 '회심' 2017년 'The Spirit'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초교파적으로 청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도전을 심어주고 있다.

성령한국은 빅 콰이어의 찬양을 오프닝으로 1부에서는 박성민 목사(한국CCC)의 말씀 선포에 이어 청년과 게스트의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된다. 2부와 3부는 각각 비움과 채움을 주제로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와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의 설교가 이어진다. 4부에서는 김정석 담임목사(광림교회)가 콜링의 시간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청년들을 향해 강한 메시지와 함께 결단의 시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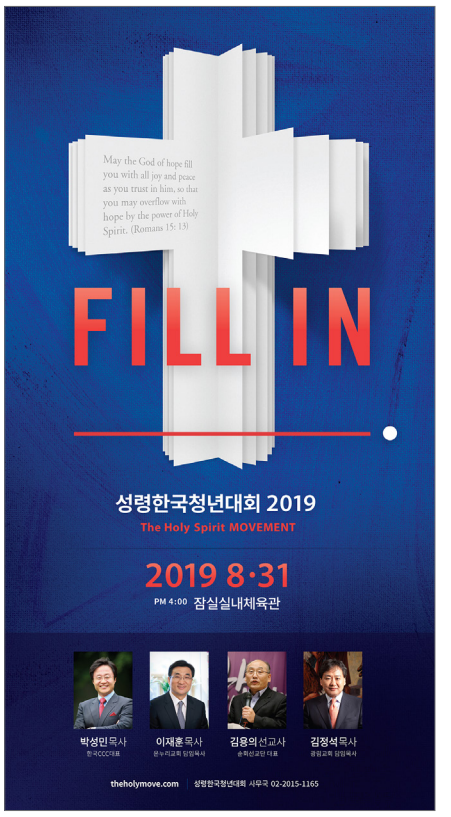
예배인도자 함부영(전 마커스 커뮤니티, 현 플래이트)과 이우람 전도사(온누리교회), LF 미니스트리가 찬양을 인도하고, 300명의 예배 콰이어가 은혜와 감동의 찬양을 선사한다.

〈2019 성령한국대회〉는 특히 각 교회의 성장과 연합에 관심을 갖고 대회에 앞서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성령한국 300연합 콰이어'를 통해 각 교회의 예배 팀 인도자 성장과 예배 부흥 △매주 목요일 저녁 광림교회에서 개최하는 '성령한국 연합 기도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연합 △'순회 기도회'로 지역 교회들과 연합하여 지역교회를 중보한다. 또 일회성 대회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세미나와 소그룹모임, 지역 청년대회 등을 개최,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확장해 가고 있다.

공동대회장을 맡은 김정석 담임목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실패와 좌절이 없다. 이번 대회를 통해 현실의 삶에 지쳐있는 청년들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로 채워지는(Fill in)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필교 성도(광림청년부)는 "8년 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주님 한 분 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의 많은 부분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음에도 뭔가 허전한 느낌이에요. 이번 집회를 통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주님만으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했다.

이선아 기자 andy8950@naver.com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2019년 〈제3회 여선교회 지방 계삭회〉, 광림사회봉사관에서 열려



강남지방 10개 교회 여선교회원 179명 참여

7월 4일(목) 오전 10시 15분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여선교회 강남지방연합회의 2019년 제3회 계삭회가 광림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 A홀에서 열렸다. '다시 뜨겁게, 회복'이란 2019년 주제 아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사도행전 8:22)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강남지방 10개 교회 여선교회 회원 총 179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호응과 관심으로 참여했다.

광림교회 김영희 권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는 이종옥 권사(광림교회)의 대표기도와 광림교회 여선교회성가대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이어서 김정석 담임목사가 아비가일의 믿음을 살펴보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 여인'(사무엘상 25:23~35)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했다.

2부에는 청년기도운동 '지저스 웨이브' 대표인 김성욱 박사가 '한민족을 향한 부르심'(엡 1:17~19)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 특강이 있었다.

3부에서는 계삭회가 진행되었다. '계삭회'란 지방회 단위 여선교회 조직을 흔히 '계삭회'로 불렀는데, 이는 지방 내 개체교회 여선교회원들이 1년에 네 차례 1월, 4월, 7월, 10월에 모여 회무처리를 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이날 사회자는 특별광고로 〈제24회 여선교회 서울남연회 선교대회〉가 9월 26일(목) 오전 9시 30분 광림교회에서 있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공지했다.

변영혜 기자 yhbyun1010@hanmail.net

포토 뉴스



광림남교회 차량 봉헌 감사예배

7월 3일 본당 주차장에서 광림남교회 차량 봉헌 감사예배를 드렸다.



남선교회 임원 및 스데반선교회 특송

7월 6일 남선교회 임원들과 스데반선교회 원들이호렙산기도회에서 특송을 불렀다.



원로장로회

6월 30일 주일 낮 12시 40분 원로장로회가 광림사회봉사관 4층에서 열렸다.

담임목사 동정



6/3~7/12	제31회 호렙산 기도회
7/4	월드비전 이사회
7/4	사랑부 운영위원회
7/12	호렙산 기도회 성찬식
7/12	장로회 월례회
7/13	월간회의

감독 동정



6/3~7/12	제31회 호렙산 기도회
7/3	광림남교회 차량 봉헌 감사예배
7/9	국가원로회의 이사회
7/12	호렙산 기도회 성찬식
7/12	장로회 월례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내 인생의 말씀

보잘 것 없는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

청소년기의 나는 작은 부탁마저도 거절하지 못하는 내성적인 학생이었다. 꿈도 없었고 눈에 띄게 잘하는 것도 없었다.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정말 살아계시다면 날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로 간구했다.

그 때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이미 달란트를 수없이 주셨다고 하셨다. 나는 이에 용기를 내어 미대를 가기로 결심했고, 적극적으로 고등부 활동도 하고 말씀 묵상을 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

부모님의 걱정과 반대에도 입시를 준비했고, 결국 재수까지 하며 어찌 어찌 원하던 과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참여하지 않은 행사가 없을 정도로 뜨거웠던 시간을 보내며 휴학 한 번 없이 졸업을 하게 되었다.

핑계지만, 내로라하는 스펙 한 줄 없이 졸업하며 취업난에 과연 취직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 대학입시 때도 그랬지만, 직장 또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모든 시도를 다 해보다 마지막에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자, 이를 기뻐하시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다. 남들처럼 일반적이고 평범한 방법이 아닌, 나로서는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알 수 밖에 없는 여정이었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모습과 기적 같았다.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안 것과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이 큰 복이란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증거 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돕고자 고등부 교사와 청년부 속장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처럼 잘난 것 하나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들어 쓰신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밖에 없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하나님의 섬세한 개입과 놀라운 일하심이 앞으로 내 가정을 이루고 헤쳐나가야 할 어려운 여정 가운데 단단한 중심이 되어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이 되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이사야 60:2)



윤고사 성도(고등1부 교사)

生生
생생 속회 (39회)
13교구 1지구 속회

사랑과 기도와 헌신이 우리 속회의 부흥 비결이에요



한결같은 지구장의 속원 사랑이 큰 힘!

"저희 속회는 지구장님의 기도와 헌신과 열정으로 잘 유지되어 오는 것 같아요. 다양한 연령 계층이어서 살아온 삶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로 모이는 귀한 분들입니다. 지구장님의 긍정 마인드로 속회 시간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귀한 자리입니다." (이경미 권사)

"지구장님과 함께 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구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챙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백경자 권사)

속원들의 한결같은 지구장 사랑의 주인공은 13교구 1지구장 정규문 권사이다. 13교구는 상일동, 명일동, 하남 등 서울 외곽지역으로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지만, 지구장의 열정과 속원들의 순종으로 1년 내내 빠짐없이 속회를 드리고 있다. 이뿐 아니라 직장 때문에 속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속원들을 위해 사업장이나 가정에 직접 찾아가 일대일로 속회를 드리고 있다.

"지구장 직분을 맡고 달려온 지도 벌써 25년이 되었네요. 때로는 타성에 젖어 편한 것을 찾을 때도 있었지만,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며 모든 속원들과 함께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 때문에 속회에 못 나오는 이정림 집사는 제가 직접 사업장에 가서 일대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긴급기도제목이 있을 때마다 저를 통해 함께 기도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더욱 속회를 사모하게 된다는 간증을 들으면 정말 힘이 나고 찾아가는 속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라고 정규문 권사는 말한다.

속원들의 연령대는 다르지만 다들 속회에서 훈련받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 각 처에서 헌신하고 있다. 백경자 권사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속원들을 태우고 속회로 인도하는 차량 봉사를 한다. 정경남 권사는 트리니티 자원봉사자 총무로, 이경미 권사는 트리니티 찬양단으로 오랫동안 봉사하고 있고, 속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다. 진인숙 집사는 얼마 전 큰 수술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속원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이겨내며 누구보다 밝은 얼굴로 참석하는데 열심을 다한다. 가장 막내인 김현희 집사는 어린 아기 때문에 매주 참석은 못하지만 시간만 되면 참석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예쁜 사람이다.

이 외에도 오랫동안 고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안미숙 집사, 올해 대심방 기도제목이 응답받고 남편이 싱가포르로 발령을 받게 된 이수아 성도, 속회를 사모하여 참석하려고 애쓰는 이선옥 성도, 직장인이지만 토요일마다 지구장과 일대일로 드리는 속회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김주경 성도가 함께하고 있다.

지구장의 헌신으로 속원들은 소소한 일상과 삶의 문제를 신앙으로 풀어가며 고민, 걱정, 생각 등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 세상에서 나눌 수 없는 진리를 함께 나누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본 받을만한 하다.

백명순 기자 bmsoon@naver.com

성경 일독 목표 이루고, 하나님의 뜻 알게 돼



90일 성경통독, 신선한 충격과 새로운 도전

먼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일독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과정 가운데 함께하고 독려해준 아내와 기도로 함께해주신 18교구 남성 속회 속원들께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일독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목표로 하는 것이고, 또한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한 일일 것입니다. 저도 성경일독을 목표로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 해 초 청장년부의 '씨드 톡' 강의를 통하여 90일 성경통독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시대순으로 하여 15주(1주 6일, 주일은 휴식 또는 부족분 보충)에 일독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90일 성경통독은 1년에 1독도 하지 못하던 저에게 신선한 충격과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같은 마음이었는지 아내가 함께 90일 성경통독을 제안하였고, 청장년부의 같은 속의 속원도 따로 하는 것보다 함께 공유하면 힘을 얻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여 함께 통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주일 후 즈음, 지구장님으로부터 지구의 성경통독 희망 인원들의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서로의 통독 결과를 공유하고 좋은 말씀을 나누고 통독 중 생기는 기도제목도 공유하면서 진행하자고 하여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읽어

2019년 1월 15일에 시작하여 5월 23일에 성경일독에 성공하였습니다. 15주가 아닌 더 오랜 시간(19주)이 걸렸지만, 태어나 처음 일독에 성공하였습니다. 물론 통독 중간에 많은 위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통독시간을 잠자기 전으로 정하여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아내와 통독을 하였는데, 아이들을 재우면서 먼저 잠드는 일이 많았고 일상의 피로와 통독이 습관화되지 않음을 핑계로 포기하고자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상시간을 1시간 정도 앞당겨 통독을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성경일독을 위한 18교구 남성속회 속원들의 기도와 순간순간 나에게 필요한 말씀, 말씀의 주인공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응답 등을 경험하고 1시간 빠른 기상시간이 습관화되면서 통독이 즐거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1독을 하였으니 시작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른 기상시간이 습관화 된 덕분에 호렙산 기도회도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올 해 목표는 호렙산 40일 완주 후인 후반기에도 1독을 더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답이 있고, 지혜가 있고, 삶이 있습니다. 아직 성경일독을 이루지 못한 분들은 성경일독을 통하여, 아니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그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찾고 누리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치현 성도 (청장년부)

크리스천 리더를 키워 가는 어린이영어예배부

7월 27일~28일 여름성경학교, 8세~13세 어린이들 모여라!







"친구들과 함께 찬양과 율동,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영어도 잘해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래요."

믿음의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여름성경학교

광림교회 어린이영어예배부(SH.E.W)는 8세부터 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믿음의 다음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In Jesus name, Wake & Walk'라는 주제로 7월 27일(토), 웨슬리관 4층 예배실에서 2일간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한다. 오전 10시 개회예배(Opening worship)를 시작으로, 각종 미션 게임(Mission game)과 친교, 물놀이를 즐기며 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토요일 저녁 집회는 장소를 옮겨 광림사회봉사관 4층 컨베션 B홀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하며, 광림 교인이면 누구나 참여해 쉬운 영어로 진행되는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찬양과 율동 "Dance with Jesus"를 통해 마음을 모아 하나 되는 시간을 갖고 <제9회 CTS 대한민국 어린이 합창제>에서 호평을 받은 '모멘텀(Momentum)' 뮤지컬 공연이 이어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Exodus) 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Now we are free'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광림교회 어린이 뮤지컬 팀은 국내 유일의 크리스천 어린이 영어 뮤지컬 팀으로, 유치원부터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12명의 단원들이 춤, 노래, 연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찬양사역자 김브라이언 <초청 부흥 집회>

'주가 일하시네,' '오직 예수' 등 다수의 찬양을 통해 널리 사랑받고 있는 가수이자 찬양사역자인 김브라이언(Brian Kim)을 초청해 7월 27일(토) 저녁 7시에 부흥 집회를 갖는다. 찬양과 설교,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시고 역사하시는지,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도전 정신과 크리스천 리더의 꿈을 심어줄 것이다.

어린이영어예배부 박남규 위원장은 "비전랜드가 아닌 교회 내에서 진행되는 이번 영어예배부 여름성경학교에 광림교회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 부모님, 그리고 관심 있는 모든 광림 교인들이 참석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로운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영어예배부 여름성경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어린이영어예배부 여름성경학교]
대상 : 8세~13세 모든 어린이들
일정 : 7월 27일(토)~28일(주일)
장소 : 웨슬리관 4층 예배실
문의 : 전유미 전도사 010-5053-5029

유병권 기자 ybkpower@empas.com

<소망사진관>, 호렙산 함께한 가족의 소중한 추억 담아



지난 7월 6일(토) 올해로 6회를 맞는 <소망사진관>은 광림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청장년부에서 매년 마지막 토요일 호렙산기도회 후에 진행되고 있다. 가족사진 촬영을 통해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고 전수한다는 취지를 갖는다.

말씀 캘리 액자를 들고 가정별로 촬영을 하는 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다. 소망사진관은 청장년부에서 성도들을 섬긴다는 의미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단 액자 및 사진 파일을 받는 경우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해외 및 국내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날 소망사진관에는 90여 가정이 촬영을 했다. 150분 남짓 한 시간 동안 한 치의 불편함 없는 진행을 위해 접수, 안내, 촬영 보조 등 곳곳에서 청장년부 임원단과 지구장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하지만 듬직하게 섬겼다. 특별히 명용인 집사는 사진작가로서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특별히 감사하고 있다.

소망사진관은 '소망'이라는 이름과 같이 각 가정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고 이뤄가기를 꿈꾸는 믿음의 사역이다. 소망하는 사역이 절실히 필요한 까닭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절망과 외로움의 눈물을 삼키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뤄지는 것 같아 쓰러지고 넘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소망할 수 있다. 가족사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한다.

박상익 전도사(청장년부)

신앙 간증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올해 12월이 되면 제가 광림교회에 온 지 6년이 됩니다. 그 중에 4년을 교회가 있는 서울과 대전 집을 오가며 주일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서울과 대전이라는 먼 길을 오고 가면서 계속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리를 지키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서울로 예배를 드리러 가나요?" 저는 매주 하나님께 물으며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하나님만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셔서 작년 12월에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선하고,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적합합니다. 저는 최근에 정체성과 비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이번 호렙산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는 저에게 6번째 호렙산 기도회였습니다. 대전에 있었기에 매년 집에서 영상으로 호렙산 기도회를 드리다가 4년만에 직접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 은혜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호렙산 기도회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호렙산 기도회를 드리는 40일은 저에게 1년 365일 중에 시간의 십일조로 40일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을 통해 저는 다시 새로운 1년을 살아갈 용기와 소망과 담대함과 능력을 얻어갑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굳건히 일어서게 해주시고, 매일 함께 호흡하고,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제 누군가가 저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대답에 맞게 살기 위해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저의 모든 것을 아뢰고, 제 삶에 항상 동행해주실 것을 매일 기도합니다.



강다희 성도(청년부)

함께 준비하는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 목회현장 -



강명남 목사(교육1부)

호렙산 기도회의 끝자락이 다가올수록 교회학교는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호렙산 기도회 마지막 날이 바로 교회학교 여름행사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많은 교사들은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부서를 위한 간절한 기도제목을 적고 부르짖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힘들어도, 부서마다 여름행사를 위한 기도의 모임과 릴레이 기도, 금식은 영적으로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올해도 19개 부서가 저마다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름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나 바쁜 삶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함께' 모여 여름행사를 준비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3장은 성전 재건 동안 누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공통 목표를 위해 일했으며, 또한 다른 사람에 비해 일을 얼마나 했느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한 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크든 작든 각자가 할 수 있는 일,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는 공통된 목표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경험을 나누며, 부서와 부서 간에 서로 협력하는 모습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 모세는 아론과 함께,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렇기에 한 부서 안에서 교사와 교사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이번 여름행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19년 'Wake & Walk'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였던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치유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2000명의 예배자 회복 위해 산 정상에서 기도

- 광림남교회 -



성경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두 사건에 등장하는 호렙산, 그리고 소명을 받은 두 명의 지도자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창대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면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족의 명운이 걸린 위기 앞에서 백성을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과 고뇌를 이겨내고 명령대로 선포하며 소명을 감당하는 모습, 그리고 눈앞에서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사 택한 백성을 살리시고 뒤를 쫓는 애굽 군대에게 물길을 닫아 바다 가운데 수장해 버린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으면서도, 사흘 만에 마실 물이 없어지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떠올리며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항상 호렙산 기도회 40일 을 완주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광림남교회는 수도권 남부, 특별히 용인 동백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엄청난 잠재력의 땅 용인 처인구가, 서쪽으로는 광교와 흥덕지구, 남쪽으로는 동탄 1, 2신도시, 북쪽에는 분당과 수지 죽전, 그리고 광주시가 펼쳐있고, 그곳이 광림남교회가 기도하며 섬기는 지역사회입니다.

남선교회에서는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2,000명의 예배자 회복을 위해 모세와 엘리야의 심정으로 돌아가는 것과 남교회가 섬기는 지역을 직접 바라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고, 그 장소를 용인에서 세 번째로 높은 동백 석성산 정상(471m)으로 정했습니다. 일자는 6월 29일, 산행시간은 아침 5시 50분부터~8시까지, 그리고 일정이 끝나면 조찬을 함께 하는 순서로 구성하였습니다.

임원들은 똑같은 일정으로 두 번의 답사를 진행했으며, 그때마다 정상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남선교회를 통해 계획하신 이 일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남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인 2,000명의 예배자 회복이 갈라지는 홍해처럼 영광 중에 응답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당일 새벽 4시 30분 호렙산 기도회 참석을 위해 교회에 오는데, 비가 조금씩 내려 일기예보를 보니 비가 계속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 안전이 조금 염려되었습니다. 긴급회의를 한 결과 회복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이 정도는 믿음으로 극복하자는 결론이 나와 호렙산에 오르는 모세의 마음으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흐린 가운데 18명이 석성산 정상에 올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특별히 토요경건회라는 바쁜 일정이 있음에도 성도들과 함께 '정상기도회'를 인도하신 세 분의 목사님과 남교회 성도들이 좁은 정상에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부르며 큰 소리로 기도할 때에 한 마디 불평 없이 묵묵히 지켜봐주신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무사히 기도회를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애찬을 나눌 때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또 있었습니다. 7월 2일 2부예배 찬양을 맡은 가나안성가대가 똑같은 일정으로 산행을 하며 기도회를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지경 안에 있는 광림남교회는 회복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도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

김영덕 권사 (광림남교회)

'떨기나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조각목'으로

- 광림북교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몇 명이나 올 것인가!'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지도자는 늘 숫자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1회 호렙산 기도회>가 광림북교회에서는 제1회 호렙산 기도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호렙산 기도회를 위해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어떻게 돌려야 할 것인가? 기도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기도는 아니고 불안함이 믿음은 아니었습니다.요단강을 일단 한 발 내딛고 나아갈 때 흐르던 물이 끊어졌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광야 2세대가 바로 광림북교회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6월 3일 53명으로 시작하여 한 주간 동안 50명 이상 출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대하지 못한 숫자와 기도의 열기에 감동되었습니다.

심방전도사님과 교인들, 목사인 저까지 한 마음이 되어 3시에 차량운행하며 성도님들과 카풀을 하여 40일 동안 새벽을 깨웠습니다. 광림교회에서 오랫동안 훈련받으신 권사님들도 몸이 아프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새벽기도 후 팥죽도 쑤어 같이 먹고 우리가 한 것은 많았지만, 결코 우리가 하지는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본당처럼 소망사진관도 운영하고 자녀들 안수기도도 하고 많은 것을 했지만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새벽에 60명의 성도를 허락해주셨습니다. 60명을 목표로 달려왔는데 하나님은 담임목사님 말씀처럼 투자한 곳에 생각 못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호렙산에 굴러다니는 떨기나무가 모세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조각목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떨기나무로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조각목으로 사용하십니다. 제31회 호렙산 기도회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잊지 못할 추억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박중섭 목사 (광림북교회)

〈제31회 호렙산 기도회〉,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주시는 하나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여주시는 하나님,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 2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난다. 해마다 호렙산 기도에 단련이 되어서인지 알람이 없어도 어김없이 눈을 뜨게 된다. 일행이 있어 같이 동행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더 서두르게 된다. 버스 타는 장소까지 멀지만 이웃인 성도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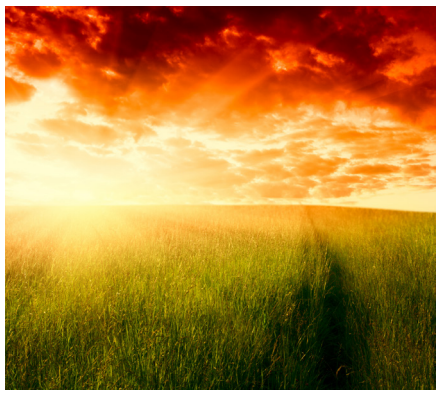
지난해 어느 날 새벽, 집에서 교회 버스를 타러 내려가는 중간 즈음 건축 중이었던 신축아파트 앞을 지나면서 하도 힘들어서 무심코 혼자 중얼거렸던 한마디, "하나님, 우리 집이 신축아파트 위치 정도면 교회 버스 타는 곳까지 걷기에 힘이 덜 들텐데요"라고 기도하며 걸었던 적이 있었다. 우리 집에서 교회 버스 타는 장소까지는 나이 들어 연약해진 내 걸음으로는 보통 25분 정도 걸려 매번 진땀이 났다.

그 후에 신축아파트가 준공되었고, 때마침 나는 집을 매매하며 신축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예전 집과 같은 동, 같은 호수 하나가 남아 매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호렙산 기도회 교회 버스 승차하는 곳까지 힘들이지 않고 갈 수 있게 되었다.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삶의 고통 중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드린다. 새벽을 열며 참석하는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더 강건해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주님 곁에 있기를 기도한다.

김윤자 권사 (33교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된 지 한 달 된 새신자입니다. 매 주일 새생명반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어 아내와 함께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36년 동안 절을 다닐 정도로 독실한 불교신자였습니다. 몇 해 전 어머님과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올해 1월에 아버님마저 돌아가셔서 마음이 외롭고 허전함을 느끼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올해 4월 말 인사만 하던 옆집 김혜경 권사님의 권유로 아내가 먼저 광림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예배와 속회를 다녀오더니 너무 좋다며 교회에 한 번 가자고 고1인 딸아이까지 설득하여 세 식구 모두 얼떨결에 교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교육과 3부예배에 참석하면서 나도 모르게 찬송가를 큰소리로 따라 부르고, 기도가 끝나고 아멘도 외치게 되었습니다. 설교하는 김정석 담임목사님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교회가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만 참석하겠다고 단호히 말하던 저는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 다음 주에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아내가 불교신자가 절에 안 가고 교회에 나오면 어쩌냐고 농담으로 말하여 크게 웃었습니다.

저는 새가족 교육은 물론 가정을 위하여 기도 해달라는 아내의 제안에 호렙산 기도회까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호렙산 기도회에 참석한 첫날, 찬송가를 부르면서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부분이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불러본적 없는 노래를 부르면서 큰 소리로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고 "주여"를 간절히 부르짖는 자신을 발견하며 불교신자가 주님을 이토록 갈망하는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하면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생각에 그동안 고단하고 외로웠던 삶에 믿고 의지할 곳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호렙산 기도회에 참석하는 내내 잠을 세 시간 밖에 자지 못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고, 새벽 호렙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긍정의 에너지를 받아 가정과 회사생활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는 찬송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회로 인도해주신 김혜경 권사님, 이태식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함께해 준 아내와 학교 공부로 지쳤겠지만 호렙산 기도회에 어렵게 참석해준 딸아이 민경이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김태권 성도 (6교구)

"엄마가 기도를 강하게 해줘서 합격한 것 같아!"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방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던 아들이 평소 취업하고 싶었던 국방부 상담센터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평소 대범하고 자신만만한 아들이었지만 금번에는 꼭 합격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신경을 너무 쓰고 긴장한 나머지 감기몸살에 걸린 상태로 면접을 치렀습니다.

면접 후 아들로부터 전화가 와서 힘없는 소리로 "엄마, 망쳤어"라고 낙담하며 말하기에 "아니야, 수고했어.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거야"라고 말은 했지만, 저 또한 힘이 빠졌습니다.

호렙산 기도회에 나와 전심으로 기도했음에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합격자발표 전날 전도사님을 모시고 속회가 있었는데, 기도제목을 내놓는 순간에 아들 이야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아들이 떨어진 것 같다고 함에도 희망의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과, 아들의 낙방소식을 교인들과 공유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순간 희망을 갖고 중보기도를 강하게 해달라고 전도사님과 속회식구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 모두 호렙산 기도회에서 합심으로 중보기도를 해주셨고, 다음날 아들로부터 합격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들이 "엄마가 기도를 강하게 해줘서 합격한 것 같아!"라며 기뻐하기에 "엄마 혼자가 아니라 전도사님과 속회식구들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신 거야"라면서 저 또한 웃었습니다. 그리고 금 번 아들일로 기도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저를 보았고 회개했습니다. 또한 중보기도의 힘을 느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마 21:22)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마 18:19)

할렐루야 아멘!

이상남 집사 (13교구)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12 히브리어 알파벳



1

글의 순서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히브리어 알파벳과 고대 문자들의 모양을 미리 알려드리고, 함께 옛 글자들을 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히브리어 알파벳과 이 글자들이 고대에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는가 소개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다보면, 정말 운좋게 글자가 쓰여있는 석비, 토기, 토판, 양피지나 파피루스들을 찾아낼 때가 있습니다. 집터, 형상, 길, 무기 등의 유물도 유물이려니와 고고학자들을 가장 흥분시키는 유물은 뭐니 뭐니해도 글자가 쓰여있는 유물입니다. 글자가 주는 정보는 어마어마 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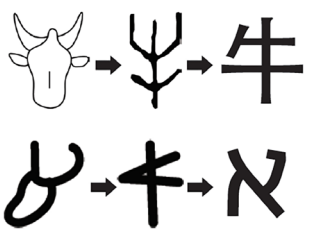
히브리어가 속한 말의 무리들을 '셈어족'이라고 합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셈의 후손들이 사용하는 말이라는 뜻이지만, 조금 유식한 척 이야기를 하면 지중해 동쪽 지역과 현재의 중동지역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말들 가운데에서 유사한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는 말들을 묶어서 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이름이 '셈어족'입니다. 학자들이 히브리어를 연구하면서 히브리어의 모체가 되는 말을 연구해 보니, 아람어와 유사성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면 가나안어, 페니키아 말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히브리 글자(알파벳)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게 되었지 알게 되었어요. 물론 완벽하게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에 토기, 석비, 파피루스 등에 기록된 글자들을 열정적으로 연구한 끝에 히브리어와 히브리어의 친척이 되는 말들 (예를 들자면, 가나안어, 모압어, 페니키아어, 암몬어, 아람어 등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순수한 학문적인 연구가 그냥 연구실에서만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의 기록과 가나안과 가나안 주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러가지 모양으로 관계를 맺고 살던 사람들의 기록이 발굴되고, 연구가 거듭되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매우 믿을 만하다는 것을 글자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고, 글자의 연구가 기독교 신앙을 단단하게 다지는 토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는 총 22개의 글자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글과는 달리 한 글자 한 글자는 사물의 어떤 모양을 본 따서 만들었어요.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히브리어의 어머니가 되는 글자들로 거슬러 올라가면 얼핏 보아도 소의 머리, 물고기, 사람의 머리, 사람의 눈 등이 눈에 띌 겁니다. 그러나 한자(漢字)처럼 글자 하나가 한개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문에서 '소'를 가리키는 말 '牛'자는 소의 머리를 그림으로 형상화한 글자이고, 이 글자 자체가 '소'라는 의미를 가지지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도 소를 형상화해서 만든 글자가 있습니다. '알렢' א이라는 글자인데요. 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래는 소의 머리를 그리다가 차츰 기호화 된 것이 현재의 글자입니다. 하지만, 이 알렢이라는 글자 자체가 '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소'라는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소'를 뜻하는 히브리어 '알렢, 라메드, 페' אלף세 글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글자 하나는 그냥 소리의 가치만 있는 것이지요. 요즈음 종종 히브리어 단어를 글자 하나 하나가 의미가 있다며 이상하게 글자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야 말로 '낫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 나온 김에 그럼, 히브리어 글자 하나 하나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베트' ב라는 단어는 원래 텐트를 쳤을 때의 모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사각형 모양의 땅이지요. 히브리어로 '바이트' בית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무려 1,744번이나 '바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김멜' ג은 두 가지 다른 설명이 있어요. 한 부류의 학자들은 전쟁 무기용 '창(槍)'을 형상화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목이 긴 '낙타'를 형상화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글자 '김멜'과 발음도 비슷한 히브리어 단어인 '가말' גמל 이 낙타를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성경에 51번 나옴) 문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글자가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진 글자와 말들을 거꾸로 추적해 가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문법인지라, 문법과 글자를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일지라도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달렛' ד은 위의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물고기를 형상화 한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학자들은 '문(門)'을 뜻한다고 말하기도 해요. 히브리어로 '문'이라는 말을 '델렛' דלת이라고 하거든요. 문을 뜻하는 '델렛'이라는 말도 성경에 77번이나 나올 정도로 일반적인 단어예요. '헤' ה는 사람이 누군가를 부르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지요. 마치 누군가를 멀리서 '헤이'(Hey) 하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지요. '바브' ו는 전쟁 무기로 사용된 '곤봉'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못'이나 텐트를 세우기 위해서 땅에 줄을 고정해서 박아 놓는 '말뚝'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히브리어 글자 '바브'와 발음도 똑같고, 그 글자를 두 번 연속으로 쓴 형태인 성서 히브리어 단어인 '바브' ובו라는 말이 성경에는 출애굽기에만 13번 나와요. 성막을 세우면서 기둥이나 성막 자체를 고정하는 데 필요한 '갈고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헤트' ח는 히브리어 '헤' ה와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지만, 그림으로 그려진 문자를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헤트'는 '담장'을 뜻한다고 봅니다. '테트' ט는 '바구니'를 뜻한다고 말하는 설과 '물레'를 뜻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요드' י는 사람의 '팔'을 그린 것이고요. '카프' כ는 '손바닥'을 형상화 한 것입니다. '라메드' ל는 소를 모는 '막대기'를 형상화하였습니다. 성경에도 사사 삼갈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 소모는 막대기 '말마드'(히브리어 מ + 라메드의 합성어)를 가지고 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삿 3:31). '멤' מ은 '물결'의 모양을 형상화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물을 '마임' מים이라고 해요. '눈' נ은 '뱀'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아인' ע은 사람의 '눈'을 형상화했습니다. 구약성경에 886번이나 나오는 사람의 눈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인' עין 입니다. '페' פ는 사람의 '입술'입니다. 히브리어로 '입' 또는 '혀'를 뜻하는 말이 '페' פה이기도 합니다. '짜디' צ는 '식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치 땅에서 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형상화 한 것입니다. '레쉬' ר는 사람의 '머리'를 그린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도 사람의 머리를 '로쉬' ראש라고 합니다. "쉰" ש은 사람의 '치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치아를 '쉔' שן 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타우' ת는 고대에 사람들이 무언가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표식'입니다. 우리도 요즈음 X표, 또는 V표를 하면서 점검 리스트를 만드는 것처럼 고대 사람들은 X표를 하여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 놓았는데, 그 형상이 '타우' ת가 된 것입니다.

모든 히브리어 글자 하나 하나의 의미를 모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몇몇 글자들, 예를 들어서 '자인' ז이나 '사메흐' ס, '코프' ק 같은 글자는 도대체 무엇을 형상화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대충 학자들의 상상력으로 그 글자의 의미를 만드는 것이 이나라, 비교해서 참조할 만한 대조군이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발견된들 그리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학자들의 세계에서는 모르던 것을 하나더 알게 되면, 행복해 하겠지요. 그러나 언어 학자가 아닌 우리는 그 음가(音價)를 이미 알고 그 글자를 보면서 읽고 있으니 말이지요. 이제 제가 계속 소개해드릴 비문과 토기 등에 기록된 그림과 같은 글자들과 위의 표를 서로 대조해 보면, 더 재미있는 글 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설명

1 히브리어 알파벳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위원장 박영준 | 간사·편집디자인 이화목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옥이 김재현 김혜경 박신애 백명순 변영혜 소현수 안미영 유병권 이득섭 이상희 이선아 이정순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net에서 e-book 또는 https://www.facebook.com/kwanglimchurch으로 광림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